

# 일본에서의 한자 교육\*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송영빈\*\*

## <차 례>

- I. 들어가며
- II. 국어과 학습지도요령
- III. 학년별 한자 배당표
- IV. 한자 습득률
- V. 나오며

## I. 들어가며

일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검정교과서이다. 검정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교육용 기본어휘는 일반적으로 坂本一郎(1983), 『新教育基本語彙』로 대표되는 교육용 어휘에 관한 목록과 각종 어휘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선정하고 있다<sup>1)</sup>. 교육용 기본어휘에 대해서는 일찍이 193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여러 교육기관 및 국립국어연구소에서 다양한 어휘 조사를 통해 어휘표를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47회 학술발표대회(2010. 12. 18)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 부교수(ybsong@ewha.ac.kr)

1) 이에 대해서는 森篤嗣(2008), 「學校教育における「語彙」の教育」, 『日本語學』 通卷339号 (27卷10号)를 참조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용 기본어휘 목록은 없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다룰 어휘가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외국어 교육과는 달리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어휘 제약이 비교적 느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교육용 기본어휘와 달리 한자는 어휘 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학습해야 할 한자를 교육과정의 규정에 따라 지도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006자를, 중학교에서는 신용한자표(新常用漢字表) 2,136자에서 초등학교 학습 한자 1,006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에 대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한자 교육을 철저히 하는 이유는 고유어까지 한자로 표기하는 일본어의 특성상 일본어 어휘에서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어휘가 매우 많아 ‘한자 교육이 곧 어휘 교육’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어휘 교육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에 대해 초등교육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국어과 학습지도요령<sup>2)</sup>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학년별 한자 배당표<sup>3)</sup>와 이의 문제점, 초등학생의 한자 성취도, 그리고 2010년에 개정된 신상용한자표에 따른 앞으로의 어휘 교육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국어과 학습지도요령

한국에 교육과정이 있다면 일본에는 학습지도요령이라는 것이 있다. 2011학년도부터 기존 지도요령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습지도요령’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국어과 지도요령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sup>4)</sup>

- 2) 이하의 기술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지도요령’으로 부르기로 한다.
- 3) 이하의 기술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배당표’로 부르기로 한다.
- 4)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youryou/syo/koku.htm](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youryou/syo/koku.htm)(2011년2월3일 검색).

국어를 적절히 표현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하여 상호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사고력이나 상상력과 언어 감각을 길러,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여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위의 목표는 일본 국어교육의 목적이 적절한 표현과 이해를 통한 상호 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도요령에서는 학습활동과 지도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학습활동은 (A) 말하기·듣기, (B) 쓰기, (C) 읽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도내용은 [전통적인 언어문화와 국어의 특질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지도요령에서는 이 부분이 ‘언어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지도요령에서는 ‘전통적인 언어문화’와 ‘국어의 특질’로 구분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전통적인 언어문화와 국어의 특질에 관한 사항]은 학습 활동에서 다루는 (A)(B)(C)에 관한 내용과 서사(書寫), 다시 말해서 한자 쓰기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한자 쓰기 항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한자가 일본의 전통적인 언어문화이자 일본어의 특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한자는 본질적으로는 단순한 표기 수단인데, 이를 굳이 ‘언어문화’로 규정하는 것은 한자 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문화’는 구체적으로는 (가) 전통적인 언어문화에 관한 사항, (나) 말의 특징이나 규칙에 관한 사항, (다) 문자에 관한 사항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가) 전통적인 언어문화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학년] : - 옛날이야기나 신화 전승과 같은 책이나 문장을 읽어 주거나 듣고 발표할 것.

[3,4학년] : - 쉬운 문장체 단가(短歌)<sup>5)</sup>나 하이쿠(俳句)<sup>6)</sup>에 대해 정경(情景)

5) 5·7·5·7·7의 음절로 구성된 짧은 정형시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일본의 대표적인 시의 형식이다.

6) 5·7·5의 음절로 구성된 짧은 정형시로 주로 계절을 나타내는 계어(季語)를 넣는 것이

을 떠올리거나 리듬을 느끼면서 음독이나 암독을 할 것.  
-오랜 동안 사용되어 온 속담이나 관용구, 고사성어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할 것.

[5,6학년] : -쉽게 친근해질 수 있는 고문이나 한문, 근대 이후의 문어체 문장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음독할 수 있을 것.  
-고전에 대해 해설해 놓은 문장을 읽고 옛 사람들의 사물을 보는 눈이나 감정을 이해할 것.

위의 내용들은 고전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2000년대 중반 국어 능력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구호로 ‘아름다운 일본어를 되찾자’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고전 교육을 강화하여 일본어에 대한 애착을 회복하고 나아가 국어 능력을 키우자는 보수적인 움직임이 지도요령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고전 교육의 강화는 어휘의 교수와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과 교육용 어휘와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문자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지도요령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 학년별로 배당된 한자를 읽고 점차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2학년에서는 1학년에 배당된 한자를 쓰고 문장에서 사용함과 동시에 2학년에 배당된 한자를 점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식으로 전 학년에 배운 한자를 그 다음 학년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습한 한자를 처음부터 쓰게 할 경우 한자 학습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읽기를 우선하고 쓰기를 그 다음에 한다는 식으로 배려한 것이다.

(가), (나), (다)와는 별도로 모든 학년에 대해 ‘서사(쓰기)에 관한 사항’을 두어 각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2학년] : -자세나 용구 잡는 방법을 올바르게 하여 공을 들여 쓸 것.  
-점과 획의 길고 짧음, 글자를 교차하는 방법 등에 주의해서 필순에 따라 문자를 올바르게 쓸 것.

- [3,4학년] : -문자의 구성을 이해하고 모양을 갖추어 쓸 것.  
 -한자나 가나의 크기, 배열에 주의해서 쓸 것.  
 -점과 획의 종류를 이해함과 동시에 붓을 사용하여 문자를 쓸 때의 힘의 강도에 주의하며 쓸 것.
- [5,6학년] : -용지 전체와의 관계에 주의하여 문자의 크기나 배열을 정함과 동시에 쓰기 속도를 의식하면서 쓸 것.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필기구를 고르고 그 특징을 살려 쓸 것.  
 -붓을 사용하여 붓 끝의 움직임과 점과 획의 연결을 의식하며 쓸 것.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문자 쓰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한자를 올바르게 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3, 4학년부부터는 한자를 올바르게 쓰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다.

쓰기 외에 배당표의 한자를 실제 교육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칙을 따로 두고 있다.

- ① 학년별로 배당되어 있는 한자는 아동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 학년 이전의 학년 또는 해당 학년 이후의 학년에서 지도할 수도 있다.
- ② 해당 학년보다 이후의 학년에 배당되어 있는 한자와 그 이외의 한자를 필요에 따라 제시하는 경우 독음을 다는 등 아동들의 학습 부담이 과중하지 않게 배려할 것.
- ③ 한자 지도에 있어서는 학년별 한자 배당표에서 제시하는 한자의 글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

①은 배당표의 탄력적 운용을 말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교과서의 한자 표기는 한자 학습이 전제되고 난 뒤에 표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3학년에 배당된 한자가 2학년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단어에 출현할 경우 이 부분은 일본의 고유 문자인 히라가나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①의 규정에 의해 ‘필요에 따라’ 한자 표기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면서’라는 부분과 ‘필요에 따라 해당 학년 이전의 학년 또는 해당 학년 이후의 학년에서 지도할 수도 있다’는 것은 배당표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현행 초등학교 배당 한자 1,006자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 ‘아동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면서’라고 전제하면서도 결국은 ‘필요에 따라’ 해당 학년 이외의 한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자를 더 가르쳐도 된다는 허용 규정인 것이다.

초등학교 배당 1,006자는 한자의 글자 수만으로 보면 신문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93.9%, 잡지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90.0%를 망라하는 규모이다.<sup>7)</sup> 다시 말해서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90% 이상을 초등학교에서 배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필요에 따라’라는 표현은 배당표의 학년별 테두리를 무시함으로써 한자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 볼 ②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②는 ①번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배당표에서 정해진 해당 학년 배당 이외의 한자를 가르칠 경우, 독음을 달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 한자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를 통한 한자 교육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배당표만 갖고는 어휘 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배당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식품’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식’은 2학년에서 ‘품’은 3학년에 배당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어를 한자 표기로 교과서에서 제시할 경우는 3학년에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食’이라는 한자는 일본어에서는 ‘먹다’에 해당하는 고유어 ‘たべる’을 ‘食べる’와 같이 표기하기 때문에 만일 1학년에서 이를 제시할 경우 히라가나로 ‘たべる’라고 표기해야 한다. 한편, 이 단어는 취학 전에 이미 습득되는 기초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가르치기 위한 배당표가 오히려 히라가나 표기를 강제함으로써 한자 학습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7) 國立國語研究所(1976), 『現代新聞の漢字』 秀英出版, p.28.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 바로 ②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배당표에 구애 받지 않고 한자를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월성을 강조한 현재의 지도요령으로 바뀌기 전, ‘유토리(여유)’를 중시한 교육과정 하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유토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일본의 어휘 교육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학년별 한자 배당표

#### 1.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한자 수

학년별 한자 배당표는 아래 <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년에 따라 가르쳐야 하는 한자를 배당해 놓은 표이다. 이 표에 의해 초등학생들은 학년별로 제시된 한자를 학습하게 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해당 학년 이후에 이전 학년에서 학습한 한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한자에 대한 습득률을 높이게 되어 있다.

<표 1> 학년별 한자 배당표

1학년	一右雨円王音下火花貝學氣九休玉金空月犬見口校左三山子四糸字耳七車手十出女小上森人 水正生靑夕石赤千川先早草足村大男竹中虫町天田土二日入年白八百文木本名目立力林六五 (80자)
2학년	引羽雲園遠何科夏家歌畫回會海繪外角樂活間丸岩顔氣記歸弓牛魚京強強久近兄非徐村元言原戶 古午後語工公廣交光考行高黃合谷國黑今才細作算止市矢姉思紙寺自時室社弱首秋遇春書少 場色食心新親以嚙如西聲星晴切雪輪給線前誰祖走多太休台地也知茶書長鳥朝直通弟店点電刀冬尙 東答頭司道齋內南肉馬賣買麥半番父風分間米步母方北海妹万明鳴毛門夜野友用聯來里理話 (160자)

<p>3학년</p>	<p>惡玄暗医委意育院防飲運泳釋央黃屋溫化荷界階寒感漢濱岸起期客究急級宮球去橋業曲局銀 區苦具君係經血決隔離車湖向幸巷号根祭血仕死使始指齒詩火事持忒寫實者主守取西受外恰 終習集仕重宿所暑却加宿尚章勝項植中身神眞深進世整皆全祛送想息速快他打對拆折代第題炭 短談着注往丁朝賜周定庭箇鐘轉都吏投豆烏易登等動童農波瀾凶音箱細發又劫友劫友悲美鼻筆水 表秋兩品負部開編韻物平返勉効如妹命面問役藥由曲有遊子洋洋樂易樂藪蒼流旅兩綠川刑解標各開 (200자)</p>
<p>4학년</p>	<p>愛奈以衣衣用胃白英禁益德加果貨課芽改械者各覺完官管關繼願希季紀喜旗器機議求泣救給 舉漁共協錄鏡極劇軍郡徑型景芸去欠結建越懸固口放子候劬劬告差茶景射和休歸陳發察參產散奴士 氏史司試兒台翁辭失借種周兩訓顧初松宏唱燒象照賞臣信成省清靜帝精勳衍館寵寵選馳選然爭倉巢東 側賤卒孫帶隊達單置什仲引易低底停的典仁徒燈夕堂佛佛得毒熱念收積轉飯飛費必票標不夫 付俯爾勝兵別刀變便包法望聖牧末滿未賑民無約勇要養浴利陸良料量輪類令治例懸惠老勞錄街 (200자)</p>
<p>5학년</p>	<p>壓豎須因永營衛易益液演心往嬰恩可伋佃河;過賀解格確額珥擗衄貫限基寄規規義逆久旧居計境均 禁包群係孫繫件券檢檢現減故個護劬厚耕弘構興肅昆查再災表採察在財罪懈後贊支志枝師資 飼示以識質舍講辨刈參進術轉字招承言正條大常情縹識訓性政勢精製稅責縹縹設舌絕錢祖素總造 像增韻則屬幸對具且貸能訂勸藥巧是程適綴姑純鍾專德獨任燃能破仇伊明反比把非備儀表質布婦富 武復復山編介保募報豐方貿暴勢姿迷縹餘預容略留領快 (185자)</p>
<p>6학년</p>	<p>異;豐成宇响延;沼;沼;及廣革闊割株干卷看簡危机貴賤吸供媿媿筋筋承敬警輻穴六緝權蕙原曠己 呼誤后孝皇紅降鋼刻隸股骨因砂密齊裁策冊蚤至私委視韻聾志礙毋捨尺若特判文宗就衆從縱縱純 處署都除;的;錫;障;城;恭;仁;垂;推;寸;蓋;聖;誠;宣;專;泉;光;炎;善;泰;念;創;裝;層;燥;藏;藏;存;尊;七;担;田;窳;廷;勉;愛;值 宙;忠;著;德;眞;綱;貨;痛;展;討;党;糖;屆;難;乳;認;新;彌;底;丰;背;節;伊;毋;免;否;批;秘;腹;奮;並;陞;閉;片;補;葆;誦;亡;忘 椿;枚;幕;密;盟;擘;解;郵;優;効;甄;亂;月;曉;裏;律;誦;誦;論;揮 (181자)</p>

배당표는 1958년에 발표 당시 총 881자였던 것이 1977년에 996자로 늘고, 1989년에는 1,006자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습해야 하는 한자 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한자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며 문부성 산하 국어심의회의 보수화वाद 맞물려 있다.

1946년 한자 제한을 목적으로 한 당용한자표(當用漢字表) 1,850자가 내각 고시에 의해 발표되었다. 당용한자표의 고시는 한자 표기에 있어서 표준적인 기준이 없었던 당시의 일본에서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한자 제한을 실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자 제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을 보면서 다시 개정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이다. 즉 ‘당용’이라는 명칭은 한

자 제한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사용하는 한자의 목록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당용한자표는 정부의 공용문서는 물론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한자를 1,850자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 1,850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난해한 한자로 이루어진 전문용어에 대해서도 1,850자 범위에서 정리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한자 제한을 통한 어휘의 민주화, 나아가 일본어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용한자표에 따르면, 예를 들어 ‘弗素(불소)’의 ‘弗’이 당용한자표 이외의 한자라는 이유로 ‘フ、素’와 같이 하나의 단어를 가타카나를 섞어 표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반 사회는 물론 학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나아가 당용한자표가 당시 패전국 일본을 지배하던 연합군사령부의 한자를 없애려는 음모였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자 제한 정책은 1960년대에 들어 급격히 후퇴하게 된다. 당용한자표가 합리적인 한자 사용, 혹은 한자 폐지를 목표로 한 의미 있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한자 표기 관습을 깨는 역할을 했다는 점 때문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당용한자표의 개정 움직임은 1960년대 들어 나타나는데, 1962년부터는 문부성 국어심의회에 진보적인 위원은 이후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했고 1966년 당시 문부성 장관이었던 나카무라 우메키치(中村梅吉)는 ‘국어시책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라는 자문을 통해 그동안의 국어정책(한자 제한을 포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표명한다.<sup>8)</sup> 자문의 골자는 일본어는 한자·가나 섞어 쓰기가 당연한 것이며 이후에 이에 대한 논의는 안한다는 것이었다.<sup>9)</sup> 이러한 입장 표명은 앞으로 한자 제한, 나아가 한자를

8) 노부라 마사아키 지음/송영빈 옮김(2007), 『한자의 미래』커뮤니케이션북스, p.97

9) ‘한자·가나 섞어 쓰기’라는 것은 일본어의 경우, 한자어는 물론 고유어의 대부분까지 한자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일본어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한자어만 한자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자혼용’과 일본의 ‘한자·가나 섞어 쓰기’는 성격이 다르다.

없애려는 논의는 더 이상 금지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당용한자표’가 표방했던 적극적인 한자 제한에서 크게 후퇴한 ‘상용한자표’가 1981년 내각 고시된다. 이 표는 총 1,945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한자 수가 늘어난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점은 ‘당용한자표’가 표방했던 ‘제한’의 색채를 완전히 없앴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표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당용한자표’와는 달리 ‘과학, 기술, 예술 그 밖의 각종 전문분야나 개인의 표기까지 이 표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당용한자표’에서는 적용 대상이었던 것을 부정함으로써 한자 제한을 실질적으로 철회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배당표 한자도 꾸준히 늘어 현재의 1,006자가 되었다.

한편, 국어과 수업 시간은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줄어 수업 시수를 단순히 학습해야 할 한자 수로 나누어 한 글자당 학습시간(분)을 보면 <표 2>와 같다.<sup>10)</sup>

<표 2> 한자 하나당 학습 시간(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평균
1961	233	135	67	61	57	77	82
1971	141	98	65	65	57	58	72
1980	161	87	65	65	48	50	69
1992	172	89	63	63	51	52	72
2002	153	79	53	53	44	44	62
2011	172	89	55	55	43	44	76

위의 표는 1961년도부터 2002년까지 한자 학습 시간이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한자 학습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1학년에 국어과 학습 시간이 1961년 이후에 최대로 늘게 됨으로써 한자 한 글자당 학습 시간도 늘게 되었다. 국어과 학습 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국어 능력의

10) 島村直己(2005), 「國語教育と漢字」, 『朝倉漢字講座 4 漢字と社會』, 朝倉書店, p.233.  
2011년은 필자가 조사한 것임.

강화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자 학습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58년 첫 배당표는 881자를 수록하고 있던 데에 비해 1977년에는 996자로, 1989년에는 1,006자가 되어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10년에 고시된 신상용한자표(2,136자)에 의해 중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한자가 936자에서 1,130자<sup>11)</sup>로 늘게 된 것처럼 초등학교 배당표도 앞으로 한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2011학년도는 초등학교의 교과서 검정이 이미 종료되어 신상용한자표를 반영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학습 한자의 증가는 보류되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보다 정확히는 ‘당용한자표’에서 ‘상용한자표’로의 이행이 한자 제한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신상용한자표’에서의 한자 수의 증가를 낳은 것처럼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한자 수의 증가는 필연적인 것이다. 일본어가 한자 혼용을 하는 한 한자로 표기하고 싶은 욕구는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한자 학습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10년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국어분과회에서 신상용한자표를 제정함에 있어서 몇 개의 한자를 추가할 것인가를 심의할 때, 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금도 한자 학습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자를 더 늘리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는 점이다.<sup>12)</sup> 일반 사회에서의 한자 제한에 대한 철폐 분위기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11) 이것은 초등학교 배당표 한자 1,006자를 뺀 나머지 한자를 중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여 얻어진 수치이다.

12)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국어분과회의 그간의 활동 및 신상용한자표 제정 경위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사이트를 참조.

## 2.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문제점

현행 배당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비판이 있다.

첫째는 배당표만 갖고는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중요 어휘를 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環境)’, ‘복지(福祉)’와 같은 어휘는 교육상 중요한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環’과 ‘祉’가 배당표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초등학교에서는 표기할 수 없으며 원활한 어휘 지도가 어렵다는 주장이다.<sup>13)</sup> 지도요령에도 명시된 것처럼 배당표에 없는 한자에 대해서는 한자로 표기하고 음독을 달아서 제시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있는 것은 음독을 다는 것이 번거롭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아가 그 배후에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앞으로 더욱 한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둘째는 사회 일반의 표기와 학교에서 배우는 표기와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sup>14)</sup> 예를 들면, ‘인간성을 배양하다’에서 ‘배양하다’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일반 사회에서 ‘育む’라는 식으로 한자를 써서 표기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 한자의 토대가 되고 있는 상용한자표 음훈표에서는 ‘育’에 대해 ‘はぐくむ’라는 훈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표기할 때는 ‘はぐくむ’라고 히라가나로 적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용한자표 음훈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훈을 더욱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sup>15)</sup>

13) 篠崎佳子(2006), 「これからの時代に応じた教育漢字の研究—字種、音訓とその学年配当を中心に—」,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發表要旨集』 111,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 p.79.

14) 國立國語研究所(1983), 『現代表記のゆれ』에 의하면 신문에 출현한 단어 34,477개 가운데 4,916개에서 이중적인 표기가 있었다고 한다. 신문 출현 한자 표기 가능 단어 약 14%에서 단어를 두 종류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라 마사아키 저, 송영빈 역(2007), 『한자의 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pp.133-138.

15) 현재 초·중·등 교육에서 한자의 음과 훈은 1991년 문부성에서 제정한 「音訓の小・中・高等學校段階別割り振り表」음과 훈의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배당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한자 사용을 지지하는 입장인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1,006개의 한자가 초등학생이 학습하기에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자 학습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한자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한국어와는 달리 일본어의 경우 한자를 혼독하는 관습이 있어 하나의 한자에 여러 개의 훈과 음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배당표의 한자 수는 1,006개이지만 음과 훈을 합치면 모두 2,394개가 되어 이를 각각 외워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일본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한자의 음과 훈을 읽는 방법이 상용한자표 음훈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일반사회에서 이것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규정은 ‘당용한자표’에서 ‘상용한자표’로 이행되면서 없어졌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예를 들면, ‘明’에 대해서 음은 ‘メイ’와 ‘ミョウ’ 두 가지이고, 훈은 ‘あ・かり’, ‘あか・るい’, ‘あか・るむ’, ‘あか・らむ’, ‘あき・らか’, ‘あ・ける’, ‘あ・く’, ‘あ・くる’, ‘あ・かす’처럼 9개가 있다.<sup>16)</sup> 여기에서 훈은 일본어 고유어에 한자 표기를 대응시킨 것이다. 이처럼 음과 훈을 모두 외워야 하기 때문에 1,006개라는 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표기의 문제는 음과 훈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 고유어에 대해 일본은 한자 표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こども(어린이)’라는 것을 한자를 써서 표기할 경우, ‘子供’, ‘子ども’와 같이 두 개의 표기가 가능하다. <표 1>의 배당표에서 보면 ‘子’는 1학년에 ‘供’는 6학년에 배당이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표에 의한다면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子ども’로 표기해야 하고 6학년부터는 ‘子供’로 표기해야 한다. 물론, 지도요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학년 이후에 배우도록 되어 있는 한자도 필요에 따라 먼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만일 6학년 이전에 ‘어린이’라는 말을 제시할 경우 ‘子供(こども)’라는 식으로 한자 표기 뒤에 훈을 달아주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子’는 1학년에 ‘供’는 6학년에 배당이 되어 있다는

16) ‘あ・かり’, ‘あか・るい’에서 ‘・’ 앞 부분을 한자 ‘明’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

사실을 모르는 교사가 많고 일반 사회에서도 방송에서는 ‘子ども’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작가들은 ‘子供’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으로 통일할지 아직까지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문제는 일본어에는 정서법이 없다는 점과, 근본적으로는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당용한자표에서 상용한자표로의 이행에서 한자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국가가 개인의 쓰기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일본에 있어서 표준적 표기를 정한 정서법의 제정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이러한 혼란한 표기, 한자 사용 상태임에도 학생들은 꾸준히 한자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상황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계속되고 있다.

#### IV. 한자 습득률

한자 습득률은 어떤 한자를 측정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이 끝난 시점에서 읽기에 대해서는 문자 수준에서 92.7%, 음훈 수준에서 76.0%로, 대체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쓰기에서는 문자 수준에서 66.2%, 음훈 수준에서 53.5%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즉 어느 학년에서나 배운 한자는 대체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쓰는 것은 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배당되는 한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후인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읽기는 문자 수준에서는 98.6%, 음훈 수준에서는 93.7%에 달한다. 또한 쓰기는 문자 수준에서는 86.0%, 음훈 수준에서는 79.5%에 달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상급 학년에 배당 되어 있는 한자는 습

17) 清野隆(2007), 「國語科教育の基礎學の構築—漢字指導の問題—」,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發表要旨集』, 113,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 p.140.

득률이 낮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1학년에서 배운 글자는 5학년이 되면 음훈 수준에서 86.3%에 달한다. 그러나 5학년에 배운 글자는 4년 후인 중학교 3학년에서는 습득률이 71.9%밖에 되지 않는다.<sup>18)</sup>

중학교에서는 현재 1,130자의 한자를 배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없지만 초등학교보다 낮은 결과가 예상된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일본어 표기에 대해 정확히 쓸 수 있는 비율이 최대 70%를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같이 교육 여건이 일본과 비슷하고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과이다. 이러한 쓰기의 낮은 달성도는 한자에 집착하는 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현행 한자 중심 표기를 대체할 새로운 표기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한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연구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일본의 실정이다.

## V. 나오며

일본의 국어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주안점은 한자 교육에 있다. 그러나 정서법의 부재, 한자의 낮은 습득률, 일본 한자가 갖는 다양한 음과 훈 등의 문제로 학습이 곤란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실시된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한자를 현행 ‘언어 사항’에서 격상시켜 ‘전통적인 언어문화와 국어의 특질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해서 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었다. 다시 말해서 한자는 일본어의 특질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언어문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할 항목이라는 것이다.

2010년 신상용한자표 고시에 의해 초등학교도 앞으로 한자 배당표의 한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배당표 1,006자 이외의 상용한자에 대해 기존 1학년 250~300자, 2학년 300~350자, 3학년

18) 노무라 마사아키 저, 송영빈 역(2007), 『한자의 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pp.200-203.

나머지 상용한자를 대체로 읽을 수 있게 할 것에서 1학년 300~400자, 2학년 350~450자, 3학년은 변경 없음(그러나 신상용한자 수가 191자 늘었으므로 실제로는 증가)으로 변경되었다. 2011학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은 영어교육이 실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한자 학습에 대한 시간적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점차 외래어가 확산되면서 기존에 있던 한자어를 외래어가 대신하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어휘 교육, 특히 한자 교육이 앞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 주목된다.\*

---

\* 본 논문은 2011. 2. 28. 투고되었으며, 2011. 3.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清野隆(2007), “國語科教育の基礎學の構築－漢字指導の問題”,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發表  
要旨集』, 113,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
- 國立國語研究所(1976), 『現代新聞の漢字』, 秀英出版.
- 國立國語研究所(1983), 『現代表記のゆれ』, 秀英出版.
- 坂本一郎(1983), 『新教育基本語彙』, 學芸図書.
- 篠崎佳子(2006), “これからの時代に応じた教育漢字の研究－字種, 音訓とその學年配当を  
中心に”,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發表要旨集』, 111,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
- 島村直己(2005), “國語教育と漢字”, 『朝倉漢字講座 4 漢字と社會』, 朝倉書店.
- 노무라 마사아키 저, 송영빈 역(2007), 『한자의 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 森篤嗣(2008), “學校教育における「語彙」の教育”, 『日本語學』 通卷339号, 27卷10号, 明治  
書院.

▣ 참고 사이트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의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index.html](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bunkasingi/index.html)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http://www.nicer.go.jp/guideline/old/h10e/chap2-1.htm>

문부과학성 「音訓の小・中・高等學校段階別割り振り表(음과 훈의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배당표)」

[http://www.mext.go.jp/b\\_menu/hakusho/nc/t19901022001/t19901022001.html](http://www.mext.go.jp/b_menu/hakusho/nc/t19901022001/t19901022001.html)

<초록>

일본에서의 한자 교육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송영빈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어휘 교육을 개관하는 데 있다. 일본어는 한자어 뿐 아니라 고유어에 대해서도 한자 표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휘 교육에 있어서 한자 교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 교육은 학년별로 교육할 한자 배당한 학년별 한자 배당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년별 한자 배당표는 국가가 정한 교육용 기초어휘표가 없는 일본에서 어휘 목록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1,006자의 한자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음뿐만 아니라 훈까지도 외워야 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한자습득률인데 읽기에서는 92.7%를 보여주고 있지만 쓰기에서는 66.2%밖에 정답을 쓰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문자 사용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한자어를 외래어가 대신하는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점차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앞으로 일본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어휘 교육, 한자 교육, 한자 배당표

<Abstract>

## Chinese Character Education in Japan

—In Case of Elementary School—

Song, Young-bi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or the establishment of vocabulary education in Japan. The fact that Japanese uses Chinese characters for not only on Chinese based words but also on their native vocabulary indicates that teaching Chinese characters plays a big part in vocabulary education. Teaching Chinese characters is achieved through a list which demonstrates the Chinese characters needed to be educated at each grade.

The list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by grade plays the role of a vocabulary list in Japan which does not have a educational basic vocabulary list. Presently 1,006 Chinese characters in total are required to be learned from grades 1 to 6. It can be said that children are put under big pressure as they have to learn both the sound and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The rates for the Chinese character comprehension prove the above statement; the results show a 92.7% comprehension in reading while only 66.2% can actually write the answer. Maintaining this kind of a defective letter system is very irrational and thus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improvements.

In the general society, the change of Chinese based words being substituted by foreign words is progressing rapidly. However in the educational scene more stress is being put on strengthening Chinese character education. There is a need to observe how this conflict will influence the Japanese edu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Vocabulary education, Chinese character education, The list of Chinese character